

도교육청 독도체험관, 부안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전

# 올바른 역사관 형성 앞장

20일 개관... 일반 현황  
자연환경·역사 등 구성  
체험 컨셉으로 공간 전환



픽, 조명, 모형 등으로 전시 환경을 구축했다. 독도의 역사 공간은 문헌 기록과 사진, 그래픽, 영상, 고지도 활용 등의 시각 자료를 이용해 상세하게 전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꾸렸다.

독도체험관이 오는 20일 부안에 위치한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전 개관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형성을 위해 독도체험관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고창 삼인 학습장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석면 공사 및 안전장난 문제로 이전을 논의, 학생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안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전북교육청 독도체험관은 △일반현황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역사

△독도 체험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고·듣고·느낄 수 있는 체험적 이고 교육적인 컨셉으로 전체 공간을 바꿨다.

전시 공간은 독도의 지리·역사·체험 공간으로 구획하며, 각 공간별 핵심 주제를 지역적 특성과 조화롭게 결합해 관람객에게 독도를 알리고,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독도의 지리 공간은 독도의 자연 환경(지형, 지질, 동식물 등)이 관람객에게 특별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그래픽, 조명, 모형 등으로 전시 환경을 구축했다.

끝으로 체험 공간은 디스플레이 변화, 영상, 인터랙티브, 터치패드와 스크린을 연동해 체험을 통해 독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도체험관 운영을 통해 학생과 전북도민의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독도 실시간 영상, 독도 관련 체험(VR·AR 포함), 문헌·사진·그래픽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독도교육 내실화 및 우리 영토주권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달 28일 진수당 기린홀에서 2월 밀로 정년을 맞은 교수들에 대한 정년기념식 및 훈포장 전수식을 가행했다고 밝혔다.

## “평생 쌓아온 업적 빛나게”

전북대 교수 22명 정년기념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달 28일 진수당 기린홀에서 2월 밀로 정년을 맞은 교수들에 대한 정년기념식 및 훈포장 전수식을 가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년을 맞은 교수는 김학용·김환철 교수(교분자성유나노공학부)를 비롯해 임명섭(전자공학부), 양승현(지역건설공학부), 박세훈(교육학과), 최종민(일반사회교육과), 송정기

(사회학과), 최나일(무역학과), 이영환(어동학과), 정회천(한국음악학과), 이수택·김정수·서민욱·이재백(의학과), 이월영(국어국문학과), 최재철(스페인중남미학과), 설근수(일본학과), 서은경(반도체과학기술학과), 오창환(지구환경과학과), 배태성(치의학과), 방국수(한약자원학과), 양고수 교수(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등 모두 22명이다. 이날 정년기념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정년퇴임 교수 및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강단을 떠나는 교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송덕사를 통해 “교수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낸 연구와 교육적 성과는 후학들에게 귀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비록 강단을 떠나더라도 평생 쌓아온 업적을 빛나게 가꿔 보람 있는 일 더욱 많이 하고, 우리 대학이 미래를 이끄는 대학, 글로벌 Top100 수준의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조언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교육부 ‘위밋 프로젝트’ 최우수 수행팀 선정

전북대 통계학과  
고경수·문우혁 학생



전북대학교 고경수·문우혁 학생(통계학과)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위밋 프로젝트’를 가장 우수하게 수행한 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대학생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정규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점도 부여된다.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사업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과 연계해 차세대반도체와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스마트미디어, 미래자동차 등 국내외 우수 기업과 손잡고 학생들의 일 경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에 빅데이터 분야를 주관하고 있는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

전북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고경수·문우혁 학생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위밋 프로젝트를 가장 우수하게 수행한 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해 위밋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장관상을 수상한 고경수·문우혁 학생은 지난해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딥페이크(dep-fake)와 립싱크(lip-sync) 기술을 적용해 자율대화가 가능한 디지털 휴먼 개발에

관련 과제를 수행, 해당 기업 재직자가 직접 리뷰 과정을 통해 기업 생활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학생들은 장관상뿐 아니라 학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인증서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정은성 기자

## “글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서 교육감에 전달된 늦깎이 학생들의 감사 편지 '감동'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늦깎이 학생들이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감동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주부평생학교(교장 박영수)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최근 서거석 교육감에게 배움의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전주주부평생학교는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문해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예순이 넘는 박모씨는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너무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집안일을 돕다 학교에 못 갔다”면서 “항상 마음에 못이 박혀 있는 차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아들이 얼마도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소감을 썼다.

70대 엄모씨는 “어렸을 때 못 배우고 평생을 기가 죽어 살아오다가 주부학교를 알게 돼 열심히 배우고 있다”면서 “저희에게 배움을 주는 주부학교가 어려움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또 신모씨는 “산골에서 6남매 중 큰딸로 태어나 동생들을 업어 키우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면서 “글을 배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편지를 썼다.

한편 이번에 전북교육청에 전달된 편지는 최근 문해학습자 편지 쓰기 시간에 가족과 지인 교육감 등에 쓴 감사편지의 일부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려운 시절 가족들을 돌보느라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늦깎이 학생들의 항학열을 보니 감동적이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면서 “학생들이 주부평생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창의예술미래공간 ‘재탄생’

전주·남원·김제·부안 등 4곳... 미래체험공간 등 조성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이 창의예술미래공간으로 재탄생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중심의 창의 예술 미래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감상성 및 창의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교육문화회관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구조화 사업 대상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도교육청 소속 4개 교육문화회관이다. 전주와 남원은 올해 말까지, 김제와 부안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전주교육문화회관은 미래형 창의예술 도서관 환경을 구축한다. 어린 이도서관 현대화, 스마트도서관 조성, 1일학교 미래체험공간 조성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또 상상놀이터에는 가상현실 실내형 스포츠 체험존 및 보드게임존을 설치하고, 상상예술실에는 캠프전문 교육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 남원교육문화회관은 디지털미디어체험도서관, 미래교육체험존, 미래창의교육실, 청소년그룹토의 및 학습실이 조성된다.

또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창의융합체험공간, 미래교육체험공간을 완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안교육문화회관은 내년에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 조성을 위해 어린이자료실을 이전하고, 창의미래체험공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노후화 된 교육문화회관 시설을 새로운 교육환경변화에 맞게 재구조화 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서 “교육문화회관 재구조화를 통해 창의예술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교육문화회관과 군산교육문화회관은 지난해 대수선공사 및 스마트 K-도서관 구축을 완료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교직원 300여명이 지난 달 28일 대학 캠퍼스 및 주변 지역 일대에서 ESG 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전주대, ‘ESG 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활동’ 전개

전주대학교 교직원 300여명이 지난 달 28일 대학 캠퍼스 및 주변 지역 일대에서 ESG 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에 따르면 ESG 경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주시 200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동참하고자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ESG 캠페인 활동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ESG 참여 장려를 위한 SNS 게시 운동 △대

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하기, △난방온도 2℃ 낮추기 등이다.

이덕수 총무처장은 “이번 활동은 ESG 경영의 핵심과제인 2050 탄소중립 추진 캠페인의 일환인 자연순환과 깨끗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 구성원이 하나가 돼 ESG 경영을 실천하고, 깨끗한 캠퍼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우석대 산학협력단 4개 과정 전북도 산학관 커플링 선정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4개 과정이 전북도의 ‘2023학년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은 대학과 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우석대는 이번 사업에서 △기계자동차부품설계 △창의인성유아교육 △Hi-CBS교육 △특수대상통합교육 등 모두 4개 과정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 선정에 따라 우석대는 △i-CAD 교육사업단(기계자동차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 △CCC사업단(유아특수교육과·아동복지학과·작업치료학과) △Hi-CBS교육사업단(스포츠치위생학과·태권도학과) △특수대상 통합교육지원사업단(체육학과·재활상담학과·특수교육학과)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4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10개 학과 3~4학년 171명을 대상으로 산학연계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육태한 교수 약침학회장에 선출

우석대학교 육태한(한의학과)교수가 (사)약침학회장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사)약침학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대 회장으로 육태한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육태한 회장은 “학술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약침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학회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약침학회는 한의학의 한 분야인 약침술을 학문으로 발전시켜 한의학의 발전 도모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2023학년도 입학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성모)는 지난 달 28일 행복가속사 2층 컨퍼런스 홀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입생은 전문학사와 학사학위심화과정 등 모두 1,467명이다.

이날 입학식은 △개식선언 △입학허가선언 △신인상 대표선서 △총장 환영사 △의문 축사 △교수 및 학생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입학식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우병훈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최고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있는 전주비전대에선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길 바란다”며 “전국 전문대 취업률 1위인 전주비전대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